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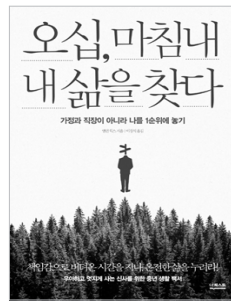
# 나이 50, 행복하세요? ...이제 자신을 위한 삶 살자

## 오십, 마침내 내 삶을 찾다

앨런 헉스 지음

실적의 위협, 나빠지는 건강, 말 안 듣는 자식들, 쇠약해진 부모, 흔들리는 부부관계... '지천명'(短天命)이라고 하는 큰 즈음에 흔하듯 걱정하는 문제들이다. 일만 쫓아 숨기쁘게 달려왔지만 직장에서는 퇴직을 염려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하다. 50대는 '인생 3기'(Third Age·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단계) 이면서 '제2의 청춘기'라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오십, 마침내 내 삶을 찾다'는 100세 시대 인생의 반란점을 도는 50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개발서다. 저자인 영국 앨런 헉스는 옥스퍼드대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



콜을 거친 성공한 기업가였다. 하지만 그는 49살에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50살에 시골 낡은 오두막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혼돈 속

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후 '신살남은 남자들의 네트워크'를 이끌며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고 65살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 기보다 각자가 처한 인생의 독특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도록 도우려'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만약 50대에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선뜻 응답하기 어려운 동년배 독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저자는 "한국의 중년들은 경제적 결핍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존중의 결핍이라는 이중 질곡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1부 '삶이 흔들리는 나이'에서는 일과 돈, 건강, 섹스, 불륜, 이혼 등이 50대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들여다본다. 또 2부 '나를 1순위에 놓기'에서는 인생 3기를 사는 50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50대 독자들에게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 으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할 것을 권한다. 단순한 위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일을 도출 할 수도 있다.

저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50대에겐 젊은 시절의 '패스트 섹스'가 아닌 '슬로 섹스'를 제안한다.

책 말미에는 부록으로 '일과 돈 점검하기'가 달려 있다.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측면의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겨 자신의 생활 속 에너지 유입·유출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독자들의 일과 삶에 대한 비전을 직접 접하도록 돕는 훈련도 있다.

만약 독자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함으로써 '나'의 '나'를 표현하고 적용한다'는 선언문을 쓴다면 팔호 안에 어떤 것을 쓸 수 있을까?

이 책은 삶의 무게에 눌려 고단한 50대들에게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의 '인생 2막'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퀘스트·1만4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50대는 치열한 경쟁의 강박에서 물러나 '나'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기계화시대의 인간 소외를 날카롭게 풍자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1936년작)

##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친 일본생활 4년

### "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 지음

'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2012년 1월 1일, 그는 다이아리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만 50세가 되는 해였다. 결심한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교수직을 과감히 던졌다.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사기예술대학 단 기학부에 들어가 일본화를 전공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남자의 물건' 등 베스트셀러를 쓴 김정운 전 명지대 교수의 이야기다.

그가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며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를 펴냈다. 부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문화 심리학'이다. 표지 그림을 비롯해 책 속에 삽입된 그림은 모두 그의 작품이다.

4년간의 일본 생활은 그가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자신에게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선사했다고 말한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속도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인간은 아플 수 없이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고독에 익숙해져야 타인



과 진정한 상호작용이 된다고 역설한다. 전 공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내공으로 그는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본다. 여기에 미술, 문학, 클래식 음악 등 문화·예술까지 녹여내 풍성한 읽을거리를 선사한다. 그의 전방위적 관심사를 따라가다 보면 책을 읽는 이들도 자꾸 호기심이 생긴다.

그의 글은 무엇보다 재미있다. 가벼운 듯하지만, 결코 가벼움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각 장마다 풀어놓은 키워드 해설이 일품이다. '배후 공간', '상호작용 의례' 등 어려운 용어들을 그 만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글을 보지 못했다.

일본의 나라, 교토에 이은 그의 다음 행보는 '여수'다. 그는 여수 바닷가에 화실을 마련하고, 진돗개 두마리를 기르며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꿈을 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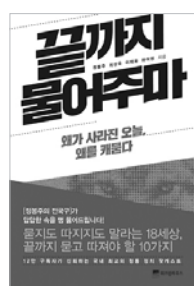
〈21세기 북스·1만8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끝까지 물어주마=정동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는 2014년 1월 첫 방송 KTX 민영화 문제를 시작으로 의료 민영화, 세월호 참사, 원전 문제,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가계부채, 미친 전세 등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별해 책으로 펴냈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음식을 굶다=원제는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Fasting', '큰 변화를 일으키는' 단식의 힘이다. 오랜 기간 힐링 분야에 종사해 온 저자 스티븐 해로드 부니는 단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지친 삶과 영혼을 되돌아보고 다독이



는 치유서인 동시에 올바른 단식의 길을 보여주는 꼼꼼한 가이드북이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의 불편한 진실. 책은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고도 체계적으로 구성된 본격 역사서와는 거리가 멀다. 정설로 굳어진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같은 사건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사 에세이 또는 칼럼에 가깝다. 단문 위주로 경제학 서술되어 있으며, 반론을 의식해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방어막을 치지도 않는다.

〈페이퍼로드·1만4800원〉



▲옥상의 미학 노트=문화평론가 이광석이 그리는 우리 시대 예술의 초상. 절망의 시대에 무엇이 예술인가, 어디서 왜 어떤 대화를 하는가...사회 현실을 창작 재료이자 작업의 전시장으로 여기며 활동하는 동시대 젊은 예술행동가들을 조명하며 이런 질문에 답한다. 노순택, 전진경, 리스투더시티, 옥인콜렉티브, 최규석, 믹스라이프, 연봉홍치마, 임흥순 등 23팀의 예술행동가들이 꿈꾸는 예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이름은 한 인디언 추장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그는

'시애틀 추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5년 미국정부의 강압에 의해 자신들의 땅을 내놓아야 했을 때,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연설문을 남겼다. 그러나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 유명세를 타면서 종잡을 수 없는 술한 이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책은 시애틀 추장의 것이라고 알려진 연설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연설문을 실은 것이다.

〈기가날·1만2000원〉

▲순자, 절름발이 자리가 천 리를 간다=맹자의 성선설을 부정하여 유가의 이단이 취급을 받는 순자. 그는 공자 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히 현실주의적 시각을 통해 제자백가의 사상을 집대성했다. 하늘과 인간을 구분하여 인간의 가치를 역설했으며, 예를 바탕으로 위할 것을 역설하며 군자의 길을 모색했다. 책은 젊은 동양철학자 임건순이 순자와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령이라는 가상의 한국인 대학생 설정해 21세기로 불러낸 순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이다.

〈시대의창·3만2000원〉

## 어린이 책

▲피너츠 완전판 1, 2=찰리 브라운, 스누피, 슈뢰더, 루시, 라이너스, 페퍼민트 패티 등 인기 캐릭터들로 기억되는 만화 '피너츠'가 완전판으로 출간됐다. '피너츠'는 이발사의 아들로 자라난 찰스 M. 슐츠의 자전적 캐릭터인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세상을 그려낸다.

〈북스토리·각 권 2만2000원〉



▲곰 아저씨네 크리스마스 여행=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을 찾아 먼 여행에 나선 곰 아저씨네 가족의 신나고 따스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림책 작

가이자 화가인 케스트티스 카스파라 비치우스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특별한 때를 보내는 신나고 따스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멋지고 환상적으로 그려 냈다. ▲고마워 사랑해=여자과 남자가 만나 기정을 이루어 아기를 낳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림책. 글을 쓴 아네스안·프란체스카 안 자매는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가정이란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궁금

해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너란 아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결실인지'를 알려 주고자 한다. 〈시공주니어·9500원〉 ▲우리 땅 곤충 관찰기 1~2=20년간 우리 산과 숲에서 곤충을 만나 온 '한국의 파브르' 정부희 박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쉬운 말로 풀어낸 한반도 곤충기. 우리나라 전체를 아울러 살아가는 곤충을 1권 '꼭꼭 숨은 곤충의 집', 2권 '하트 뽕뽕 곤충의 자식 사랑'으로 나눠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길벗스쿨·각 권 1만2000원〉

#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 부동산 투자!

##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